

『鍼經指南』과 『鍼灸玉龍經』의 문헌적 특징에 관한 연구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¹ ·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韓醫學研究所²
金聖喆¹ · 金基郁¹ * · 朴炫局²

A Study on the Documentary Characteristics of 『Chimgyeongjinam(鍼經指南)』, 『Chimguokryonggyeong(鍼灸玉龍經)』 on Acupuncture and Moxibustion

Kim Sung-chul¹ · Kim Ki-wook¹ * · Park Hyun-guk²

¹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²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During the Geum and Won dynasties, the documentary characteristics of 『Chimgyeongjinam』, 『Chimguokryonggyeong』 can be summarized into the following.

1. 『Chimgyeongjinam』

1) 『Chimgyeongjinam』 is an acupuncture and moxibustion anthology by the acupuncture expert of the Geum and Won dynasties, Duhangyeong(竇漢卿) which was edited and revised by Dugyebang and is a kind of 『Chimgusaseo(鍼灸四書)』 that was printed in the Huanggyeong Imja year of the Won dynasty(1312).

2. This book was printed as a kind of 『Chimgusaseo』 and the origins of the editions are as such. The entire text of 『Chimgusaseo』 originates from the Won edition[元刊本] of 『Chimgyeongjinam』.

3. This book has all the 12 acupuncture and moxibustion dissertations by Du.

4. Most of the contents of Du's works in this book are collections from older medical books like 『Jaoyujuchimgyeong(子午流注鍼經)』, 『Dongsuhyeolchimgyeong(銅人腧穴鍼灸圖經)』, 『Yujupalhyeol(流注八穴)』, 『Naegyeong(內經)』.

5. Duhangyeong's works on acupuncture and moxibustion were mostly collected by later generations and reflected in books on Du's acupuncture methods. dynasty.

2. 『Chimguokryonggyeong』

1) The full title of 『Chimguokryonggyeong』 is 『Pyeonjaksineungchimguokryonggyeong(扁鵲神應鍼灸玉龍經)』 and it was edited by Wanggukseo(王國瑞) in the Won dynasty.

2) This book was written before 1290 and there is the 『Munyeongaksagojeonseo(文淵閣四庫全書)』 edition which was pretty much spread around much.

3) The main part of this book is the 『Okryongga(玉龍歌)』 and its annotations.

4) The main contents of this book is a record of the acupuncture techniques of the acupuncture master of the Won dynasty, Duhangyeong.

Key Word : Chimgyeongjinam(鍼經指南), Duhangyeong(竇漢卿), Chinguokryonggyeong(鍼灸玉龍經), Wanggukseo(王國瑞)

I. 序論

금원시기 침구임상에서 최대의 특징은 鍼法을 강구하여 補瀉를 중시한 점과 經絡辨證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循經取穴’하기 시작하였다. 침구치료 문헌에는 鍼方이 灸方보다 많고 이러한 풍조의 영향으로 일부 鍼方書에는 심지어 前代의 灸方을 상응하는 鍼方으로 改編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王燾가 취한 방법과는 상반된다. 이러한 특징이 형성된 것은 『소문』¹⁾ 遺篇인 「刺法論의 영향을 받은 것 이외에 침구 대가인 竇漢卿의 공헌과 떼어놓을 수 없다¹⁾.

『鍼經指南』은 金元시기 침구 대가인 竇漢卿의 침구문집으로 元代 의가 竇桂芳이 교정하고 개편하여 만든 『鍼灸四書』의 일종으로 대략 元·皇慶 壬子(1312)년에 간행되었다. 이 이전 朱良能²⁾이 1292년 閩中(오늘날 福建)에 임직하고 있을 때에 竇氏의 遺書인 『鍼法』(竇桂芳 「서문」에는 「鍼經」으로 되어 있음)²⁾을 구하여 元貞 元年(1295)에 간각하여 널리 유포시켰다.

『鍼灸玉龍經』의 완전한 명칭은 『扁鵲神應鍼灸玉龍經』이고 元代 王國瑞가 편집하였다. 扁鵲을 탁명한 것은 그 법이 귀중하고 신묘하기 때문이다. 이 책에는 金元 침구대가인 竇漢卿의 鍼論을 많이 수록하였고, 竇氏의 침법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 竇氏의 『鍼經指南』과 상호 보완될 수

있다.

논자는 金元시기 鍼灸醫籍인 『鍼經指南』과 『鍼灸玉龍經』을 선택하여, 최근 黃龍祥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³⁾ 조사와 분석을 통한 침구문헌의 특징을 밝혀 보고하는 바이다.

II. 本論

1. 『鍼經指南』

1) 작자

竇漢卿은 名이 傑이고 나중에 默으로 개명하였으며, 字는 子聲이고 廣平 肥鄉(오늘날 河北에 속함) 사람이다. 1196년에 태어나 1280년에 졸하였고 金元시기 저명한 침구가이다. 명의 李浩를 만나 침법과 秘穴을 전수받아 마침내 침술로 명성을 날렸다. ‘太師’로 추서되고 시호가 ‘文正’이었기 때문에 후인들은 또한 그를 ‘竇太師’, ‘竇文正公’이라 하였다. 그가 일생 동안 저술한 것은 아래와 같다.

① 流注指要賦

② 鍼經標幽賦

③ 竇太師鍼灸

④ 『銅人鍼經密語』(佚失됨)

⑤ 氣元歸類(이미 일실되었음. 羅天益의 『衛生寶鑑』에 이 책의 佚文이 기재되어 있음)

⑥ 六十六穴流注秘訣 『醫藏目錄』에 나타남. 원서는 이미 일실되었음)

⑦ 流注八穴(朱良能 『鍼經指南』 「서문」에서 ‘八穴眞經’이라 하였음)

이밖에 清代 王宏翰은 「玉龍歌」도 竇漢卿(『古今醫

* 교신저자 : 김기욱,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과학교실,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E-mail : kkw@dongguk.ac.kr Tel : 054-770-2664.
접수일(2009년 1월 23일), 수정일(2009년 2월 7일),
게재확정일(2009년 2월 9일)

1) 黃龍祥 著. 朴炫局, 尹鍾和, 金基郁 共譯. 中國鍼灸學術史大綱. 서울. 법민문화사. 2007. p.100.

2) 竇漢卿 著. 黃龍祥, 黃幼民 校注. 鍼經指南·鍼經指南序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368.

3) 黃龍祥 主編.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p.368-386, 448-450.

史(卷六)에서 나온 것으로 보았다. 이 歌賦와 寶漢卿 침법의 특징은 매우 비슷하여 寶氏의 제자가 寶氏의 침법에 대해 총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寶漢卿이 세상을 떠난 후에 계속 그의 침구저술을 결집하여 책을 만든 사람이 있었는데, 元代 羅天益이 寶氏의 저술을 비교적 초기에 정리한 의가의 한 사람이다. 여러 의가들이 수집한 내용은 일치하지 않고 題名도 달라 ‘鍼法’ 혹은 ‘鍼經’ 혹은 ‘鍼灸法’이라 하였다. 그 이후 元代 의가 寶桂芳이 전해 지던 초본과 朱良能의 刊本인 『鍼經』을 참고하여 오류를 바로잡고 새롭게 개편하여 『鍼經指南』이라 하였다.

2) 판본

『鍼經指南』은 『鍼灸四書』의 일종으로 간행되었고 판본의 원류는 다음과 같다.

(1) ‘元刊本’

원본은 없다. 張金吾의 『愛日精廬藏書志』에 元刊本『鍼灸四書』를 모사한 寶桂芳 ‘自序’ 뒤에 기재된 표기에 의하면, 이 판본은 燕山活濟堂에서 皇慶 壬子(1312)년에 각판한 것으로 이전에 알려진 至大 辛亥(1311)년은 아니다. 이 판본은 원서에 있는 7편의 서문과 발문을 모두 실었다. 明初 대형의서인 『普濟方』에 『鍼灸四書』 전문을 거의 인용하였고, 의거한 판본은 ‘元刊本’이다.

(2) ‘天一閣藏本’

현존하는 유일한 『鍼灸四書』간본이다. 10줄 22자, 黑口, 左右雙邊으로 되어 있다. 벌레에 심하게 손상되었다. 天一閣에 소장된 『鍼灸四書』 가운데 『新刊黃帝明堂經』 「서문」의 끝에 “至大辛亥春月燕山活濟堂刊”⁴⁾이라 하였기 때문에 『鄭範氏天一閣書目內編』에서 이 판본을 元·至大辛亥刻本으로 확정하였고 기타 각종 서목에서도 모두 이를 따랐다. 그러나 日本宮內廳에 소장된 明·成化八年 羅氏竹坪書堂

에서 간행한 『鍼灸四書』 가운데 『新刊黃帝明堂經』 「序文」의 끝에도 마찬가지로 “至大辛亥春月燕山活濟堂刊”⁵⁾로 되어 있다. 두 책의 行款과 字體가 같고 또한 斷版된 흔적도 비슷하기 때문에 두 책을 인쇄한 시기가 가까운 明印本이다. 또한 이 두 『鍼灸四書』본은 모두 寶桂芳의 「자서」와 『子午鍼經』의 「서문」, 『鍼經指南』의 「서문」 등이 없어 『愛日精廬藏書志』에 실린 ‘元刊本’을 모사한 것과 특징이 부합하지 않는다.

(3) ‘明·宣德 七年 廣勤書堂新刊本’

이 판본은 書目에 기재된 것을 볼 수 없다. 그러나 明·正統12년 葉景逵이 廣勤書堂에서 『鍼灸資生經』을 새길 때에 “昨家藏宋南渡後新刊『鍼灸四書』及『鍼灸資生經』實上古聖賢活人之指南也。凡軫視脈息, 鍼灸腧穴具在中, 然當世缺本, 是用梓行, 以廣其傳……”⁶⁾(正統新刊本『鍼灸資生經』目錄상의 끝에 葉氏가 표기한 것)이라 하였다. 葉氏는 『鍼灸四書』를 확실히 소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當世缺本’하였기 때문에 이 책을 중간하는 것은 완전히 가능하였다.

(4) ‘明·成化 八年本’

현재 日本宮內廳 書陵部에 소장하고 있으며 行款, 字體가 ‘天一閣本’과 같다. 『鍼經指南』에 붙어있는 『鍼灸雜說』의 卷末에 “成化壬辰仲秋竹坪書堂新刊”⁷⁾이라 하였다. 현존본에서는 단지 『子午流注鍼經』, 『鍼經指南』, 『灸膏盲腧穴法』³⁾종만 있고 그 중에 앞 2종은 殘缺되어 있다.

이 판본을 成化壬辰 ‘新刊’이라 하였지만 斷版된 흔적을 많이 볼 수 있으며, 臺灣故宮博物院에 소장된 ‘成化癸巳羅氏竹坪書堂新刊本’과는 다르고 ‘天一閣本’에 가깝다. 이 판본은 新刊한 것이 아니라 竹

5) 寶漢卿 著, 黃龍祥, 黃幼民 校注. 鍼經指南·鍼經指南考略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384.

6) 丁丙 撰. 續修四庫全書編纂委員會 編. 善本書室藏書志 卷 16 續修四庫全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發行年末詳. p.349.

7) 寶漢卿 著, 黃龍祥, 黃幼民 校注. 鍼經指南·鍼經指南考略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385.

4) 寶漢卿 著, 黃龍祥, 黃幼民 校注. 鍼經指南·鍼經指南考略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384.

坪書堂에서 明·成化 8년에 舊版에 의거하여 다시 찍었음을 알 수 있고, 이때에 원판을 일부 수정하였을 것이다. 의거한 舊版이 ‘元刊本’인지 또한 ‘明刊本’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의거한 본이 初刻本이 아님을 판정할 수 있다.

(5) ‘成化 九年本’

이 판본은 현존하는 유일한 足本 『鍼灸四書』간본이다. 『新刊子午流注鍼經』목록 뒤에 “明成化九年羅氏竹坪書堂新刊”⁸⁾이라 표기되어 있다. 이 판본은 원래 일본 寶素堂에서 소장(森立之 등 『經籍訪古志』에 의거)하였고, 나중에 楊守敬이 淸·光緒 年間に 일본에 유학하였을 때 사온 것으로 楊氏가 세상을 떠난 후에 모든 장서를 국가가 매입하여 故宮博物院에 소장하였다. 현재 臺灣故宮博物院에 소장되어 있다.

이상의 판본 가운데 ‘天一閣藏本’, 日本宮內廳에 소장하고 있는 ‘成化八年本’이 가장 빠르다. 그러나 전자는 손상이 심하기 때문에 『鍼經指南』을 정리하는 데에 ‘成化八年本’을 저본으로, ‘成化九年本’을 校本으로, 『普濟方』을 他校本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3) 기본 내용과 구성

『鍼經指南』은 寶氏의 침구논저 12편 즉 「鍼經標幽賦」, 「流注通玄指要賦」, 「鍼經直說」, 「絡說」, 「交經辨」, 「氣血問答」, 「手足三陰三陽表裏干支配合」, 「流注八穴」, 「補瀉法」, 「夫婦配合」, 「古法流注」, 「雜忌法」 등을 수록하였다.

이상 12편 가운데 「鍼經標幽賦」⁹⁾는 『鍼經指南』에 처음 나타나며 내용은 주로 자법, 취혈, 치료 등 침구학의 일반적인 문제를 기술하였다. 이 편은 침구를 배우는데 입문이 되는 의서이기 때문에 역대 의가들이 중시하여 王開, 徐鳳, 楊繼洲, 吳崑, 李學川 등이 이賦에 주를 달았다. 그 가운데 王國瑞 『鍼灸玉龍經』에 실린 「注解標幽賦」는 그의 부친 王開의 注本이고, 이밖에 錢曾의 『讀書敏求記』에 抄本

인 「寶太師注標幽賦」 1권이 있고 표제가 ‘蘭江鏡潭王開整集’으로 되어 있어 王開 注本の 단행본이 아닌가 한다.

『鍼經標幽賦』에 있는 적지 않은 문구가 閻明廣의 『子午流注鍼經』에 실린 何若愚의 「流注指微鍼賦」 및 閻氏의 주문과 같거나 비슷하다. 寶氏는 이賦에서 閻注를 발취시켜 「流注指微鍼賦」를 만들었고賦의 명칭에서 ‘鍼經’은 『子午流注鍼經』을 가리키고, ‘標幽’의 ‘幽’는 “既而感指幽微, 用鍼直訣”¹⁰⁾이라 한 何氏의 뜻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流注通玄指要賦』¹¹⁾는 元代 羅天益의 『衛生寶鑑』에 처음 실렸고, 아울러 注文도 있다. 賦 앞에 寶氏의 자서 한 편이 있고 “壬辰(1232년)重九前二日”¹²⁾로 되어 있다.

寶氏의 「自序」에 의하면 이賦는 명의 李浩가 전한 침구임상경험 즉 43개의 증을 치료하는 秘穴을 운문형식으로 「賦就一篇」하여 암송하기 편하게 만들었다고 하였다¹³⁾. 원대 이후 수많은 의서에 모두가 賦를 실었고, 그 중에 元代 羅天益, 杜思敬, 明代 楊繼洲, 淸代 李學川 등이 이歌賦에 주를 달아 큰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鍼經直說』¹⁴⁾은 ‘金·大定五卷本’ 『銅人腧穴鍼灸圖經』의 제1권 12경맥순행과 병후의 원문을 주해한 것이다. 寶氏는 원문을 주해하였을 뿐 아니라 또한 전인의 잘못된 注文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하였다.

『絡說』¹⁵⁾ 아래에 「絡穴說」, 「絡穴辨」 두 구절이 있다. 기술한 15絡穴은 12경에 각기 하나의 絡穴이 있고 여기에 脾之大絡, 陰驕絡, 陽驕絡 3絡을 가하여 모두 15絡이다. 이는 『難經』의 설을 따랐다.

8) 寶漢卿 著. 黃龍祥, 黃幼民 校注. 鍼經指南·鍼經指南考略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384.

9) 寶漢卿 著. 黃龍祥, 黃幼民 校注. 鍼經指南·鍼經標幽賦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370.

10) 楊繼洲 原著. 中華醫學名著寶庫編纂委員會 編. 鍼灸大成·流注指微賦·寶氏 中華醫學名著寶庫. 北京. 九州圖書出版社. 1999. p.921.

11) 寶漢卿 著. 黃龍祥, 黃幼民 校注. 鍼經指南·流注通玄指要賦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p.371-372.

12) 羅天益 著. 馬繼興 主編. 衛生寶鑑·鍼法門 羅天益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77.

13) 寶漢卿 著. 黃龍祥, 黃幼民 校注. 鍼經指南·鍼經指南考略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385.

14) 寶漢卿 著. 黃龍祥, 黃幼民 校注. 鍼經指南·鍼經直說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p.372-373.

15) 寶漢卿 著. 黃龍祥, 黃幼民 校注. 鍼經指南·絡說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373.

『交經辨』¹⁶⁾에서는 足厥陰肝經과 足太陰脾經이 內踝上 8寸 앞뒤에서 서로 교체됨을 강조하였다.

『氣血問答』¹⁷⁾에서는 경맥에 기혈이 행하는 이치 이외에 또한 取穴, 刺法, 取寸法 및 鍼과 灸의 관계 등의 문제를 기술하였다. 唐代 孫思邈이 “『明堂』, 『偃側』鍼訣皆無不灸”¹⁸⁾라 하였는데 이는 고대 『明堂』 陰穴書의 刺灸法에 대한 본래의 뜻을 오해한 것이다. 그 영향을 받아 宋金元 의가는 어떤 병이나 증을 불문하고 대부분 먼저 침을 놓고 뒤에 뜸을 뜨는 것이 좋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寶氏は 본편에서 “鍼則鍼, 灸則灸, 若鍼而弗灸, 若灸而弗鍼”¹⁹⁾라 지적하였고, 후에 明代 陳會, 汪機, 李梴, 楊繼洲 등과 같은 의가들이 다시 언급함으로써 이런 편향을 바로 잡았다.

『手足三陰三陽表裏支干配合』²⁰⁾은 閻明廣의 『子午流注鍼經』, 『三陽三陰流注總說』과 『三焦心包絡二經流注說』 등의 요지를 밝힌 것이다.

『眞言補瀉手法』²¹⁾은 鍼刺法을 전문으로 논한 것으로 내용은 ‘虛實補瀉法’, ‘寒熱補瀉法’, ‘生成數法’, ‘迎隨補瀉法’, ‘內經補瀉法’ 및 자침의 기본 기법인 ‘手指補瀉法’을 포함하고 있다. 寶氏は 『內經』의 자침(『素問』遺篇의 ‘刺法論’을 포함)과 閻明廣, 何若愚의 침법을 계승한 기초 위에 寒熱補瀉法을 만들고 14종의 기본 침자기법을 총결하여 후세 침자법의 연구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현행본 『鍼經指南』에 실린 이 부분의 문자에는 뒤섞이고 빠진 곳이 많아 寶氏 원서의 옛 모습을 상당히 잃었다.

『夫婦配合』²²⁾, 『古法流注』²³⁾ 두 편은 『子午流注

鍼經』의 설을 밝힌 것으로 그 중에 「夫婦配合」은 『子午鍼經』, 『三陽三陰流注總說』의 취지를 전술하였고, 「古法流注」는 『銅人圖經』과 『子午流注鍼經』의 『經脈氣血總說』편을 발췌한 것이다.

『雜忌法』²⁴⁾은 『素問·刺禁』, 『靈樞·逆順』 등의 刺禁 내용을 총결하였고, 『鍼灸避忌太一之圖序』²⁵⁾, 『冬至葉瑩宮說』²⁶⁾ 두 편은 ‘金·大定 五卷本’인 『銅人腧穴鍼灸圖經』에서 직접 베꼈다.

이상 『鍼經指南』에 수록된 각 편에서 보면 寶氏의 저작은 대부분 『子午流注鍼經』, 『銅人腧穴鍼灸圖經』, 『流注八穴』, 『內經』과 같은 전인의 의서를 초록하거나 총결한 것이다. 그중에 『子午流注鍼經』와 『銅人腧穴鍼灸圖經』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鍼經指南』에서 寶氏 본인의 학술사상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은 『氣血問答』, 『眞言補瀉手法』 두 편이다.

4) 傳本에 따른 차이

寶漢卿의 침구저작은 대부분 후인이 總結, 彙集, 轉錄하였고, 寶氏침법 의서에 집중적으로 반영되었다. 元代 寶桂芳이 편집한 『鍼經指南』 이외에 羅天益의 『衛生寶鑑』, 王國瑞의 『鍼灸玉龍經』, 明代 『鍼灸大全』 및 寶氏穴法을 전문으로 수집한 『寶太師秘傳』이 있다. 이밖에 단행본인 『玉龍歌』와 그 뒤에 붙어 있는 腧穴 전문서도 寶太師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羅天益은 일찍이 寶氏와 함께 작업을 하였고 寶氏의 침서를 최초로 정리하였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지만 체계적이고 전면적이지는 못하다. 조금 뒤에 朱良能이 寶氏의 遺書を 얻어 1295년에 간행하였는데 제목은 『鍼經』이다. 寶桂芳은 또한 이 판본과는 다른 『指南』을 참고하고 오류를 정정하여 『鍼經

16) 寶漢卿 著. 黃龍祥, 黃幼民 校注. 鍼經指南·交經辨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373.

17) 寶漢卿 著. 黃龍祥, 黃幼民 校注. 鍼經指南·氣血問答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373.

18) 孫思邈 撰. 劉更生, 張瑞賢 等 點校. 千金翼方·雜法第九 千金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4. p.262.

19) 寶漢卿 著. 黃龍祥, 黃幼民 校注. 鍼經指南·氣血問答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373.

20) 寶漢卿 著. 黃龍祥, 黃幼民 校注. 鍼經指南·手足三陰三陽表裏支干配合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p.373-374.

21) 寶漢卿 著. 黃龍祥, 黃幼民 校注. 鍼經指南·眞言補瀉手法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p.378-380.

22) 寶漢卿 著. 黃龍祥, 黃幼民 校注. 鍼經指南·夫婦配合 鍼灸

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380.

23) 寶漢卿 著. 黃龍祥, 黃幼民 校注. 鍼經指南·古法流注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380.

24) 寶漢卿 著. 黃龍祥, 黃幼民 校注. 鍼經指南·雜忌法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380.

25) 寶漢卿 著. 黃龍祥, 黃幼民 校注. 鍼經指南·鍼灸避忌太一之圖序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380.

26) 寶漢卿 著. 黃龍祥, 黃幼民 校注. 鍼經指南·冬至葉瑩宮說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380.

指南』을 다시 편성하였다. 전면적으로 정리하였지만 조리가 결여되어 있다.

『衛生寶鑑』의 『鍼法門』 권20에서 羅氏는 “癸丑歲(1253年), 與寶子聲先生隨駕在瓜忽都田地裏住冬, 與先生講論, 因視見『流注指要賦』及『補瀉法』, 用之多效, 今錄於此, 使先生之道不泯云云”²⁷⁾이라 기술하였다. 『衛生寶鑑』에 기재된 ‘補瀉法’은 羅氏가 직접 寶漢卿 본인에게서 얻었기 때문에 그 신뢰도가 몇 십 년 후에 寶桂芳이 돌아다니던 몇 종의 본에 의거하여 개편한 『鍼經指南』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내용으로 보면 『衛生寶鑑』에서 기술한 보사법은 명확하고 통일적이지만 『鍼經指南』에서 기술한 내용은 연관성이 부족하고 앞뒤가 통일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의 정리를 거친 것이 분명하다. 예를 들어 『鍼經指南』에서 기술한 ‘寒熱補瀉法’에는 단지 ‘假令補冷法’만 기재되어 있고 상응하는 ‘假令瀉熱法’은 빠져있다. 여기에 기재된 ‘假令補冷法’ 또한 『衛生寶鑑』에 실린 ‘補法’과는 거의 차별이 없지만, 또한 ‘眞言補瀉手法’篇, ‘春夏刺淺秋冬刺深’篇은 내용상으로도 『衛生寶鑑』과 큰 차이가 있다. 寶氏가 논한 補瀉法의 원문은 『衛生寶鑑』을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2. 『鍼灸玉龍經』

1) 편자와 판본

『鍼灸玉龍經』(이하 『玉龍經』이라 간칭함)은 元代의 가인 王國瑞가 편찬하였다. 王國瑞의 부친은 元代 명의인 王開로 『蘭溪縣志』에서 “王開, 號鏡潭, 字啓元. 家貧, 好讀書, 不遇於時, 遂肆力於醫. 遊大都寶太師漢卿之門二十餘年, 悉傳其術以歸……所著有『重注標幽賦』傳於世. 子國瑞, 孫廷玉, 曾孫宗澤能世其業”²⁸⁾(『中國分省醫籍考』)이라 하였다. 또한 清代 錢曾의 『讀書敏求記』에 「太師鍼灸一卷」이 나타나고 “『寶太師鍼灸』傳於婺源王鏡澤, 共計一百二十八法, 抄錄

於成化辛丑(1481年)夏五月. 藏書家未見有此書也”²⁹⁾라 하였다.

오늘날까지 남아 있어 책을 살펴보면 그 중에 하나는 清抄本 『鍼灸秘要』에 수록되어 제목이 『寶太師秘傳』으로 되어 있다. 王國瑞 『玉龍經』에서 「玉龍歌」注文에 주를 단 수혈과 침법을 살펴보면 『寶太師秘傳』과 가깝다. 王開, 王國瑞 부자와 寶漢卿과는 모종의 특수한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周仲良이 天曆 2년(1329)에 저작한 『玉龍經』의 『後序』³⁰⁾에 의하면 당시 그가 『玉龍經』을 얻은 지 40년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이에 의거하여 추산하면 『玉龍經』은 1290년 약간 이전에 成書되었다. 이 책은 오랫동안 刊本이 없었기 때문에 널리 유전되지 못하여 明初에 金元시기 침구문헌을 풍부하게 수록한 대형의서인 『濟普方』, 『醫學綱目』에서도 『玉龍經』의 원문을 인용하지 않았다.

비교적 널리 유전된 『四庫全書』의 사본인 『玉龍經』은 天一閣 소장본을 채용한 것이다. 오늘날 『文淵閣本』 『四庫全書』는 臺灣商務印書館에서 영인하여 출판하였고, 上海古籍出版社에서 이 편의 縮印本을 출판하였다.

2) 기본내용과 구성

『玉龍經』의 주체적인 부분은 「玉龍歌」와 그 注文이다. 이밖에 또한 「注解標幽賦」, 「天星十一穴歌訣」, 「人神尻神歌訣」, 「六十六穴治証」, 「磐石金直刺秘傳」, 「鍼灸歌」, 「灸法去雜抄切要」 등을 실었다. 주요 내용은 金元 침구대가인 寶漢卿의 침술을 기술하고 발휘시킨 것이다. 그 중에 「注解標幽賦」는 王國瑞의 부친인 王開가 저작한 『重注標幽賦』이고, 「鍼灸歌」에서 두 번째 가결은 寶氏의 「標幽賦」, 「通玄指要賦」를 개편하여 만들었고, 「人神尻神歌訣」, 「六十六穴治証」은 寶氏의 ‘雜忌法’과 ‘手足三陰三陽表裏支干’(‘六十六流注’)을 발휘시킨 것이다. 「玉龍歌」에서 적지 않은 침방이 寶氏의 「通玄指要賦」에

27) 羅天益 著, 馬繼興 主編, 衛生寶鑑·鍼法門 羅天益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77.

28) 王國瑞 撰, 黃幼民, 黃龍祥 校注, 扁鵲神應鍼灸玉龍經·鍼灸玉龍經考略,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448.

29) 王國瑞 撰, 黃幼民, 黃龍祥 校注, 扁鵲神應鍼灸玉龍經·鍼灸玉龍經考略,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448.

30) 王國瑞 撰, 扁鵲神應鍼灸玉龍經·後序,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0. p.131.

『流注指要賦』	『玉龍歌』
“絲竹療頭疼不忍” ³¹⁾	“頭風偏正最難醫，絲竹金鍼亦可施， 更要沿皮透率谷，一鍼兩穴世間稀” ³²⁾ .
“頭項強承漿可保，風傷項急，便求於風府” ³³⁾ .	“項強兼頭四顧難，牙並並作不能寬， 先向承漿明補瀉，後鍼風府即時安” ³⁴⁾ .
“鼻塞無聞，迎香可引” ³⁵⁾ .	“不聞香臭從何治，須向迎香穴內攻， 先補後瀉分明記，金鍼未出氣先通” ³⁶⁾ .
“神門去心性之呆癡” ³⁷⁾ .	“癡呆一症少精神，不識尊卑最苦人， 神門獨治癡呆病，轉手骨開得穴真” ³⁸⁾ .
“耳閉須聽會而治也” ³⁹⁾ .	“耳聾氣閉不聞音，痛癢蟬吟總莫禁， 紅腫生瘡須用瀉，只從聽會用金鍼” ⁴⁰⁾ .
“咳嗽寒痰，列缺堪治” ⁴¹⁾ .	“咳嗽喘急及寒痰，須從列缺用鍼看， 太淵亦瀉肺家疾，此穴仍直灸更安” ⁴²⁾ .
“腹痛而脹，奪內庭以休遲” ⁴³⁾ .	“小腹脹滿氣攻心，內庭二穴刺須真， 兩足有水臨泣瀉，無水之時不用鍼” ⁴⁴⁾ .
“抑又聞心胸病，求掌後之大陵” ⁴⁵⁾	“勞宮穴在掌中心，滿手生瘡不可禁， 心悶之疾大陵瀉，氣攻胸腹一般鍼” ⁴⁶⁾ .
“但見苦兩肘之拘攣，仗曲池而平掃。尺澤去肘疼筋緊” ⁴⁷⁾ .	“兩手拘攣筋骨痛，舉動艱難疾可憎， 若是曲池鍼瀉動，更醫尺澤便堪行” ⁴⁸⁾ .
“腎俞把腰痛而瀉盡” ⁴⁹⁾ .	“腎虛腰痛最難當，起坐艱難步失常， 腎腧穴中鍼一下，多加艾火灸無妨” ⁵⁰⁾ .
“肩井除兩臂難任” ⁵¹⁾ .	“兩臂疼痛氣攻胸，肩井二穴最有功， 此穴由來真氣聚，瀉多補少應鍼中” ⁵²⁾ .
“人中除脊膂之強痛” ⁵³⁾ “腰脚疼，在委中而已矣” ⁵⁴⁾ .	“脊膂強痛瀉人中，挫閃腰疼亦可鍼， 委中亦是腰疼穴，任君取用兩相通” ⁵⁵⁾ .
“固知腕骨祛黃” ⁵⁶⁾ .	“脾家之疾有多般，翻胃多因吐食餐， 黃疸亦須腕骨灸，金鍼中腕必痊安” ⁵⁷⁾ .
“股膝疼，陰市能醫” ⁵⁸⁾ .	“膝疼無力腿如癱，穴法由來風市間， 更兼陰市奇穴妙，縱步能行任往還” ⁵⁹⁾ .
“髌骨將腿痛以才去殘” ⁶⁰⁾ .	“髌骨能醫兩腿疼，膝頭紅腫一般同， 膝關節眼皆須刺，鍼灸堪稱劫病功” ⁶¹⁾ .
“且如行步難移，大沖最奇” ⁶²⁾ .	“脚步難移疾轉加，太衝一穴保無它， 中封三里皆奇妙，兩穴鍼而並不差” ⁶³⁾ .
“瘧生寒熱兮，仗間使以扶持” ⁶⁴⁾ .	“瘧疾脾寒最可憐，有寒有熱兩相煎， 須將間使金鍼瀉，瀉熱補寒方可痊” ⁶⁵⁾ .
“稽夫大敦去七疝之偏墜，王公謂此” ⁶⁶⁾ .	“由來七疝病多端，偏墜相兼不等閑， 不問豎疝并木腎，大敦一瀉即時安” ⁶⁷⁾ .
“牙齒痛，呂細堪治” ⁶⁸⁾ .	“風牙蟲蛙夜無眠，呂細尋之痛可蠲， 先用瀉鍼然後補，方知法至人傳” ⁶⁹⁾ .

표 1. 『衛生寶鑑』-『流注指要賦』와 『扁鵲神應鍼灸玉龍經』-『玉龍歌』 일부 원문 비교

서 직접 나왔고, 그 注文에서 주해한 腧穴과 鍼灸法도

- 31) 羅天益 著. 馬繼興 主編. 衛生寶鑑·鍼灸法門·流注指要賦『羅天益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78.
- 32) 王國瑞 撰. 扁鵲神應鍼灸玉龍經·一百二十穴玉龍歌·偏正頭風.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0. p.72.
- 33) 羅天益 著. 馬繼興 主編. 衛生寶鑑·鍼灸法門·流注指要賦『羅天益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77.
- 34) 王國瑞 撰. 扁鵲神應鍼灸玉龍經·一百二十穴玉龍歌·頭項強痛.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0. p.74.
- 35) 羅天益 著. 馬繼興 主編. 衛生寶鑑·鍼灸法門·流注指要賦『羅天益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78.
- 36) 王國瑞 撰. 扁鵲神應鍼灸玉龍經·一百二十穴玉龍歌·不聞香臭.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0. p.75.
- 37) 羅天益 著. 馬繼興 主編. 衛生寶鑑·鍼灸法門·流注指要賦『羅天益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77.
- 38) 王國瑞 撰. 扁鵲神應鍼灸玉龍經·一百二十穴玉龍歌·癡呆.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0. p.76.
- 39) 羅天益 著. 馬繼興 主編. 衛生寶鑑·鍼灸法門·流注指要賦『羅天益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77.
- 40) 王國瑞 撰. 扁鵲神應鍼灸玉龍經·一百二十穴玉龍歌·耳聾.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0. p.77.
- 41) 羅天益 著. 馬繼興 主編. 衛生寶鑑·鍼灸法門·流注指要賦『羅天益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78.
- 42) 王國瑞 撰. 扁鵲神應鍼灸玉龍經·一百二十穴玉龍歌·咳嗽喘急.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0. p.78.
- 43) 羅天益 著. 馬繼興 主編. 衛生寶鑑·鍼灸法門·流注指要賦『羅天益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78.
- 44) 王國瑞 撰. 扁鵲神應鍼灸玉龍經·一百二十穴玉龍歌·氣滿.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0. p.80.
- 45) 羅天益 著. 馬繼興 主編. 衛生寶鑑·鍼灸法門·流注指要賦『羅天益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78.
- 46) 王國瑞 撰. 扁鵲神應鍼灸玉龍經·一百二十穴玉龍歌·氣附.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0. p.80.
- 47) 羅天益 著. 馬繼興 主編. 衛生寶鑑·鍼灸法門·流注指要賦『羅天益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78.
- 48) 王國瑞 撰. 扁鵲神應鍼灸玉龍經·一百二十穴玉龍歌·肘擊筋痛.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0. p.81.
- 49) 羅天益 著. 馬繼興 主編. 衛生寶鑑·鍼灸法門·流注指要賦『羅天益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78.
- 50) 王國瑞 撰. 扁鵲神應鍼灸玉龍經·一百二十穴玉龍歌·腎虛腰痛.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0. p.83.
- 51) 羅天益 著. 馬繼興 主編. 衛生寶鑑·鍼灸法門·流注指要賦『羅天益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78.
- 52) 王國瑞 撰. 扁鵲神應鍼灸玉龍經·一百二十穴玉龍歌·臂痛.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0. p.81.
- 53) 羅天益 著. 馬繼興 主編. 衛生寶鑑·鍼灸法門·流注指要賦『羅天益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77.
- 54) 羅天益 著. 馬繼興 主編. 衛生寶鑑·鍼灸法門·流注指要賦『羅天益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78.
- 55) 王國瑞 撰. 扁鵲神應鍼灸玉龍經·一百二十穴玉龍歌·腰脊強痛.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0. p.83.
- 56) 羅天益 著. 馬繼興 主編. 衛生寶鑑·鍼灸法門·流注指要賦『羅

대부분 寶氏의 법과 서로 부합한다.

『玉龍經』은 주로 寶氏의 침구논문을 회집한 「寶氏鍼灸全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王開와 寶太師의 특수한 관계로 말미암아 王氏 부자는 寶氏의 침구 遺篇을 일부 얻을 수 있었고, 寶氏의 또 다른 침구 문집인 『鍼經指南』에서 빠진 것을 어느 정도 보충할 수 있었다.

이밖에 언급할만한 것은 「磐石金直刺秘傳」으로 이는 금원시기 鍼方 전문서로 임상적인 가치가 매우 높다. 『玉龍經』에서는 일부만 수록되어 있고 傳문은 清代 『鍼灸集要』에 실려 있다.

3) 「玉龍歌」의 학술연원

「玉龍歌」와 그 注文은 『玉龍經』의 주체가 되는 부분이다. 「玉龍歌」序歌에서 「扁鵲授我玉龍歌, 玉龍一試痊沈疴. 玉龍之歌世罕得, 研精心手無差訛」⁷⁰⁾라 하였고, 「穴法歌」에서 또한 「聖人授此『玉龍經』,

- 天益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78.
- 57) 王國瑞 撰. 扁鵲神應鍼灸玉龍經·一百二十穴玉龍歌·脾疾反胃.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0. p.85.
- 58) 羅天益 著. 馬繼興 主編. 衛生寶鑑·鍼灸法門·流注指要賦『羅天益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78.
- 59) 王國瑞 撰. 扁鵲神應鍼灸玉龍經·一百二十穴玉龍歌·膝腿無力.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0. p.86.
- 60) 羅天益 著. 馬繼興 主編. 衛生寶鑑·鍼灸法門·流注指要賦『羅天益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78.
- 61) 王國瑞 撰. 扁鵲神應鍼灸玉龍經·一百二十穴玉龍歌·腿痛.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0. p.86.
- 62) 羅天益 著. 馬繼興 主編. 衛生寶鑑·鍼灸法門·流注指要賦『羅天益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77.
- 63) 王國瑞 撰. 扁鵲神應鍼灸玉龍經·一百二十穴玉龍歌·脚腫.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0. p.87.
- 64) 羅天益 著. 馬繼興 主編. 衛生寶鑑·鍼灸法門·流注指要賦『羅天益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78.
- 65) 王國瑞 撰. 扁鵲神應鍼灸玉龍經·一百二十穴玉龍歌·癱疾.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0. p.88.
- 66) 羅天益 著. 馬繼興 主編. 衛生寶鑑·鍼灸法門·流注指要賦『羅天益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78.
- 67) 王國瑞 撰. 扁鵲神應鍼灸玉龍經·一百二十穴玉龍歌·疝氣.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0. p.90.
- 68) 羅天益 著. 馬繼興 主編. 衛生寶鑑·鍼灸法門·流注指要賦『羅天益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78.
- 69) 王國瑞 撰. 扁鵲神應鍼灸玉龍經·一百二十穴玉龍歌·牙氣.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0. p.92.
- 70) 王國瑞 撰. 扁鵲神應鍼灸玉龍經·一百二十穴玉龍歌.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0. p.72.

瀉補分明切莫差”⁷¹⁾라 하였다. 이에 따르면 王國瑞는 이 歌賦의 작자가 아닌 것 같고 이는 당시 보기 드문 鍼灸歌를 수록한 것이다.

高武는 “俗以玉龍歌爲扁鵲所撰，蓋後人依托爲之者”⁷²⁾라 하여 高武와 기타 明代 의가 모두 王國瑞가 「玉龍歌」의 작자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清代 의가 王宏翰은 「玉龍歌」는 竇漢卿이 만든 것(『古今醫史』권6)으로 보았고, 내용상으로 분석하면 이 가결은 竇氏침법의 특징을 확실히 반영하고 있다. 清代 錢曾의 『讀書敏求記』에 「楊氏玉龍歌一卷」이 실려 있다.

내용을 보면 「玉龍歌」의 원문과 注文 모두 金元 침구대가인 竇漢卿의 영향 분명히 받았다. 대략 살펴보면 다음 페이지의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나열한 「玉龍歌」의 鍼方은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竇漢卿의 「通玄指要賦」에서 취하였고, 注文에서 注를 단 腧穴 내용도 전세본 『竇太師秘傳』과 『鍼方六集』에 실린 竇氏의 수혈 특징에 가깝다. 「玉龍歌」는 확실히 竇漢卿과의 관계가 밀접함을 알 수 있다. 이밖에 현존하는 단행본 「玉龍歌」 뒤에 수혈 전문가가 붙어 있는데 서명은 없지만 수혈주치와 침법이 『鍼方六集』~등에서 인용한 竇氏의 穴法과 상합한다.

「玉龍歌」는 元, 明시기에 다른 전본이 있었고, 王國瑞의 『玉龍經』에 수록된 것은 그 중에 하나이고 이밖에 단행본이 세상에 전해졌다. 明代 樓英의 『醫學綱目』에서 「玉龍歌」 鍼方 즉 『玉龍經』本과는 다른 것을 인용하였고, 明代 吳崑의 『鍼方六集』에 실린 「玉龍歌」와 高武의 『鍼灸聚英』에 실린 「玉龍賦」에서 의거한 「玉龍歌」도 모두 王國瑞가 의거한 본과는 다르다. 여러 본 사이에는 서로 장단점이 있어 상호 참고를 해야 한다.

『玉龍經』은 元代 王國瑞가 주로 前人の 것, 특히 金元 침구대가인 竇漢卿의 침구문집을 편집한 것이 개인적인 침구학을 총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周仲良은 後序에서 “『玉龍經』者，婺源王先生所傳

鍼灸之書”⁷³⁾라 하였다. 이 책에서 최초로 「玉龍歌」와 학술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鍼方專集인 「盤石金直刺秘傳」을 수록하여 金元의가의 귀중한 침방과 침법 문헌을 보존하였다. 그러나 『玉龍經』과 王國瑞의 부친인 王開가 편찬한 『鍼灸全書』와의 관계가 불명하지만 양자는 같은 책이거나 적어도 부분적인 내용이 같을 가능성이 높다.

III. 結 論

金元시기 鍼灸醫籍인 『鍼經指南』과 『鍼灸玉龍經』에 관한 문헌적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鍼經指南』

1) 金元시기 침구대가인 竇漢卿의 침구문집으로 元代 의가 竇桂芳이 교정하고 개편하여 만든 『鍼灸四書』의 일종으로 대략 元·皇慶 壬子(1312)년에 간행되었다.

2) 『普濟方』에 실린 『鍼灸四書』의 전문은 『鍼經指南』~“元刊本”을 저본으로 삼았다. 현존하는 유일한 『鍼灸四書』~간본인 ‘天一閣藏本’이 있고, 이밖에 ‘明·宣德七年廣勤書堂新刊本’, ‘明·成化八年本’, ‘成化九年本’ 등이 있다.

3) 本書는 竇氏의 침구논저 12편 즉 「鍼經標幽賦」, 「流注通玄指要賦」, 「鍼經直說」, 「絡說」, 「交經辨」, 「氣血問答」, 「手足三陰三陽表裏干支配合」, 「流注八穴」, 「補瀉法」, 「夫婦配合」, 「古法流注」, 「雜忌法」 등을 모두 수록하였다.

4) 수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竇氏의 저작은 대부분 『子午流注鍼經』, 『銅人腧穴鍼灸圖經』, 『流注八穴』, 『內經』~등 전인의 의서를 초록하거나 총결한 것이다. 그 중에 『子午流注鍼經』와 『銅人腧穴鍼灸圖經』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鍼經指南』에서 竇氏 본인의 학술사상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은 「氣血問答」, 「眞言補瀉手法」이다.

5) 竇漢卿의 침구저작은 대부분 후인이 總結, 彙

71) 王國瑞 撰. 扁鵲神應鍼灸玉龍經·穴法歌.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0. p.94.

72) 高武 纂集. 黃龍祥, 李生紹 校注. 鍼灸節要聚英·玉龍賦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747.

73) 王國瑞 撰. 扁鵲神應鍼灸玉龍經·扁鵲神應鍼灸玉龍經後序.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0. p.131.

集, 轉錄하여 竇氏 침법의서에 집중적으로 반영되었다. 元代 竇桂芳이 편집한 『鍼經指南』 이외에 羅天益의 『衛生寶鑑』, 王國瑞의 『鍼灸玉龍經』, 明代 『鍼灸大全』 및 竇氏穴法을 전문으로 수집한 『竇太師秘傳』이 있다. 이밖에 단행본인 「玉龍歌」와 그 뒤에 붙어 있는 腧穴 전문서도 竇太師와 밀접하며, 竇氏가 논한 補瀉法の 원문은 『衛生寶鑑』을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2. 『鍼灸玉龍經』

1) 『鍼灸玉龍經』은 『扁鵲神應鍼灸玉龍經』이고 元代 王國瑞가 편집하였다. 이 책은 金元 竇漢卿의 鍼論을 기술하고 발휘한 것으로 竇氏의 침법 연구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

2) 대략 1290년 이전에 成書되었고 비교적 널리 유전된 ‘文淵閣『四庫全書』本’이 있다.

3) 주체적인 부분은 ‘玉龍歌’와 그 注文이다. 이밖에 또한 「注解『標幽賦』, 「天星十一穴歌訣, 「人神尻神歌訣, 「六十六穴治証, 「磐石金直刺秘傳, 「鍼灸歌, 「灸法去雜抄切要」 등을 실고 있다.

4) 주요 내용은 金元 침구대가인 竇漢卿의 침술을 기술하고 발휘시킨 것이다. 그 중에 「注解『標幽賦』는 王國瑞의 부친인 王開가 저작한 『重注標幽賦』이고, 「鍼灸歌」에서 두 번째 가절은 竇氏의 「標幽賦, 「通玄指要賦」를 개편하여 만들었고, 「人神尻神歌訣, 「六十六穴治証」은 竇氏의 ‘雜忌法’과 ‘手足三陰三陽表裏支幹’(‘六十六穴流注’)을 발휘시킨 것이고, 「玉龍歌」에서 적지 않은 침방이 竇氏의 「通玄指要賦」에서 직접 나왔고, 그 注文에서 주해한 腧穴과 鍼法도 대부분 竇氏의 침법과 부합한다.

372-373, 373-374, 378-380, 368-386.

3. 丁丙 撰. 續修四庫全書編纂委員會 編. 善本書室藏書志 卷16 續修四庫全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發行年未詳. p.349.
4. 楊繼洲 原著. 中華醫學名著寶庫編纂委員會 編. 鍼灸大成 中華醫學名著寶庫. 北京. 九州圖書出版社. 1999. p.921.
5. 孫思邈 撰. 劉更生, 張瑞賢 等 點校. 千金翼方 千金方. 北京. 華夏出版社. 1994. p.262.
7. 高武 纂集. 黃龍祥, 李生紹 校注. 鍼灸節要聚英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747.
8. 王國瑞 撰. 黃幼民, 黃龍祥 校注. 扁鵲神應鍼灸玉龍經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448. pp.448-450.
9. 王國瑞 撰. 扁鵲神應鍼灸玉龍經.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0. p.72, 74, 75, 76, 77, 78, 80, 81, 83, 85, 86, 87, 88, 90, 92, 94, 131.
10. 羅天益 著. 馬繼興 主編. 衛生寶鑑 羅天益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77, 178.

參考文獻

1. 黃龍祥 著. 朴炫局, 尹鍾和, 金基郁 共譯. 中國鍼灸學術史大綱. 서울. 법인문화사. 2007. p.100.
2. 竇漢卿 著. 黃龍祥, 黃幼民 校注. 鍼經指南 鍼灸名著集成.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373, 384, 385, 368, 370, 380. pp.371-372,